

ISSN 2466-099X

宗教文化學報

제18권 제2호

2021년 12월



전남대학교 종교문화연구소

발 간 사

2년째 펜데믹시대를 맞이하면서 세계적으로 많은 분야에서 커다란 변화가 있었습니다. 언택트시대에 사람들의 대면문화는 제한되었지만 초연결사회에서 인터넷을 통한 접촉은 증가하였고, 문화적으로는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도 하였습니다. 종교계에서도 이제 비대면의 종교적 예배나 활동이 자리잡아가고 있고 오히려 수없이 쏟아져 나오는 종교적 콘텐츠는 활용을 잘 하면 많은 지평을 넓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백신이 개발되어 연말쯤에는 코로나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리라는 기대와 희망도 사라지고 다시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사회적 동물인 인간이 겪는 고통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과학과 이성의시대인 오늘날, 민주주의와 다원화, 세계화의 흐름은 종교영역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종교의 본질은 유지한 채 새로운 환경에 대한 진전과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종교문화연구소 하반기 학술대회는 지난 11월 12일에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하반기 학술대회에서는 시의에 맞게 종교영역에서 공공성-교회의 공공성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한국의 기독교 특히 개신교는 이례적으로 단시간에 큰 부흥을 이루었지만 그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서 한국교회가 공공영역에서 신뢰와 영향력을 모두 상실하고 있다는 교회 안팎의 지적이 따갑습니다. 교회 안팎에서도 다양한 반성과 성찰의 시도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단연 핵심을 이루는 주제는 ‘공공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주제를 잡았습니다. 소주제들은 공공신학의 토대와 흐름 그리고 그 특징, 기독교사회윤리와 공공성, 농촌사회와 공공성 신앙공동체로서 교회와 공공성이었는데, 그 이론적인 총론뿐만 아니라 실천적인 면까지 아우르는 내용으로 발표가 되었고, 현장에서 사역하는 목회자들이 토론에 참여하여 발전적이고 심도있는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제18권 제2호에서는 하반기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특집으로 하여 꾸며졌습니다. 벌써 일년에 두 차례 중간하여 발간한 지 3년째가 되었습니다. 교회의 공공성 논문 4편과 일반 논문 1편, 에세이 1편을 담았습니다. 학술대회에서 토론한 토론문도 발표문 뒤에 실었습니다. 바쁜 가운데에서도 학술발표와 귀중한 옥고를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호에 아쉽게 게재하지 못한 분들께 죄송한 마음을 표합니다.

전남대 종교문화연구소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오랫동안 든든히 자리를 지켜주시고 궂은일을 마다하지 않고 도와주신 김정민 전임연구원과 운영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호에도 편집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전남대출판문화원의 송미숙 과장님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12월

전남대 종교문화연구소장 송오식

목 차

【특집】종교영역에서 공공성: 교회의 공공성

공공신학의 토대와 흐름 그리고 그 특징	김민석	1
기독교사회윤리에서 본 공공성	문시영	25
— 스택하우스(Max L. Stackhouse)를 중심으로 —		
한국교회의 공공성 회복과 마을목회	강성열	59
신앙공동체로서 교회와 공공성	장현일	89
— 교회 공공정책 일유형으로서 아동돌봄 정책 중심으로 —		

【일반논문】

칸트 철학에서 신 존재 증명	김정민	129
-----------------------	-----------	-----

【에세이】

순천 근대기독교 역사와 문화유산	송오식	167
-------------------------	-----------	-----

【부 록】

• 『종교문화학보』 논문심사 및 편집규정	183
• 종교문화연구소 연구윤리 규정	185
• 『종교문화학보』 논문투고 규정	190
• 종교문화연구소 학술세미나 실적(2019-2021.12)	193
• 『종교문화학보』 논문투고 안내	199

